

李 대통령 “종교편향 유감” 표명 국면 전환 계기 될까

반만 열린 佛心... 어청수 ‘불씨’ 여전

추석 민심 반전 노려... 근본적 해결책으론 역부족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정부의 ‘종교편향’ 논란에 대한 불교계의 반발을 진정시키기 위해 머리를 숙였다.

어청수 경찰청장의 기독교 집회 포스터 등장, 국토해양부 지리정보시스템의 사찰 정보 누락 등을 계기로 불교계의 반발이 처음 표면화되기 시작한 지난 6월 25일 이후 76일 만이다.

여권의 전방위적인 불교계 달래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난 불심이 가라앉기는 커녕 점점 악화될 기미를 보이자 이 대통령이 유감표명을 하며 직접 사대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이 공개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은 ‘쇠고기 파동’과 관련한 지난 5월 22일, 6월 19일의 2차례 대국민사과에 이어 3번째로, 대통령이 직접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서는 이번 불교계 사태를 원만히 수습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석 연휴를 국경 대반전의 기회로 삼으려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 가시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정부의 종교 편향을 규탄하는 범불교대회를 열겠다는 불교계의 입장이 부담스럽게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이번 추석 연휴(9월 13~15일)를 계기로 취임 6개월 간의 국정 난맥상을 털쳐 버리고 확실하게 국정을 장악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 제도와 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의 사과 결정 배경에는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와 국회 원로들의 조속한 해결 요구도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문제는 불교계의 반응이다. 불교계의 이번 조치 수용 여하에 따라 사태가 조기 수습이나 장기화하는 중대 갈림길에 서기 때문이다.

불교계는 일단 이 대통령의 유감표명에 대해 “이전보다 성의있는 자세”라고 평가하면서 “그간(우리가 요구한) 4가지 조건이 모두 수용돼야 한다는 것이 불교계의 뜻”이라고 말해 대(對)정부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한마디로 대통령 사과 이외에 ▲어청수 청장 파면 ▲공직자 종교편향 근절 입법조치 ▲시국관련 국민대화합 조치 등 나머지 3개 요구사항도 정부가 수용하라는 얘기다.

이 가운데 어 청장 문책 여부가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최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 ‘어청수 문책 및 자진 사퇴’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여권 핵심 관계자는 “어 청장이 종교 편향 논란과 관련,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은 분명하다는 점에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조만간 어 청장의 거취에 대한 적절한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사태수습 기대” “어 청장 경질 우선”

여야 상반된 반응

이명박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공직자의 종교편향 언행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불교 사태가 수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진정성이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한나라당=이 대통령이 ‘사과’와 다른 높은 수준의 유감 표명을 했고,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언행을 경고하는 동시에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까지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차명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국무회의에서 직접 ‘유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그 유감에는 진정성이 배어있다”며 “이제 불교계도 대통령의 진정한 뜻을 받아들여 불신의

장벽은 걷어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희태 대표는 “적정 수준의 유감표명이 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종교편향 논란이 잠재위지면 좋겠고, 앞으로 종교편향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없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종교대책특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유감표명을 한 것은 물론 앞으로 공직자들이 종교편향이라는 비난을 받을 언행을 할 경우 징계까지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을 한 만큼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인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이번 유감표시를 이 대통령이 추석연휴를 앞두고 국면 전환을 꾀하려는 조치로 간주, 실제적인 조치가 없는 사과라고 평가절하하고 어 청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어 청장의 퇴진 등 진정성 있는 조치가 빠진 사과에 대해 국민은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말뿐인 사과는 종교편향을 없애겠다는 실천적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양꼬 빠진 전방’”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또 “어 청장을 경질하지 않는 것은 권위주의 통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전명한 셈”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보복정치를 일삼는데 자신의 사과가 화해와 관용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안희정 최고위원은 “실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유감표명을 한 이번 사과만 보더라도 말과 행동이 다른 이명박 정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무원 ‘종교편향 금지’ 명문화... 차별 땀 징계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공무원 복무규정에 명문화되고,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해 차별행위를 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공무원이 종교와 관련해 불공정, 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불이익을 줄 경우 해당 공

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종교편향’ 논란과 관련, “법과 제도 개선책을 강구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날 국무회의에 긴급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또 빠른 시일내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 “공무원이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차별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종교편향 심려 꺼져 송구”

어청수 경찰청장

어청수 경찰청장은 9일 자신의 사퇴요구까지 번진 불교계의 종교편향 논란과 관련,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어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종교편향 논란과 관련해 일부 사실에 대한 오해 등으로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특정 종교 편향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힌다”고 말했다.

어 청장은 또 “앞으로 업무 전반을 세심히 살펴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진정성 없는 대통령 사과 유감”

광주·전남 불교계 성명

광주·전남 지역 불교단체가 9일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 편향 논란과 관련한 ‘유감’ 표명 발언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도, 책임자 문책도 없는 ‘유감’ 표명은 불교에 대한 또 다른 폄하이자 농락”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광주·전남불교협의회 준비위원회(가칭·이하 불교협의회) 등 11개 불교단체는 이날 오후 1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불교협의회는 “대통령과 공직자들의 종교 편향적인 발언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해’라고 말하며 형식적으로 유감 표명을 한 것은 사과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종교차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대통령 공개사과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공직자 종교 편향 근절 및 종교차별금지법 추진 ▲시국 관련



광주·전남불교협의회 준비위원회 등 11개 불교단체가 9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편향 유감 표명 발언’에 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대화합 조치를 요구했지만 어떠한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성의 있는 조치가 없을 경우 광주·전남 불교도 협의체를 구성, 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교협의회 관계자는 광주·전남 지역 범불교대회 준비와 관련해 “10월 개최 예정이며, 불교계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대회 일정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대학편입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www.kimyoung.co.kr

**대학편입 김영에 맡겨라!**

일반편입/ 학사편입/ 사범대편입/ 한의대편입/ 의약대편입

매일 공개설명회 10시/2시/ 4시/ 6시

★ 2009 편입대비 강좌안내 ▶ 종합영문법, 어휘이론, 독해이론, 논리완성, 기초입문 수험생을 위한 M T, 자기점검을 위한 주간 TEST/ LEVEL TEST/ 월간 TEST

인생역전 개강 9월1일

상위권 대학편입 전문학원 **김영 대학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웰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지킴이 **농산물품질관리사**

개강일 9월 6일 - 주말반 -

국가공인 5회시험	수강료 국가 지원
-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직종	교육보험 가입자 수강료의 80% 환급
-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의7에 의해 고용시설에 농림부 자금 지원	49명 선착순 조기마감 유의
▶ 시험 : 1차) 11월 23일 / 2차) 2월 22일	

자격취득자 100% 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36-2468

= '09년 공무원 시험에 합격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無等과 함께 합격의 꿈 '꼭' 이루세요 =

국가직 **7.9급 공무원** 지방직

강좌직종: 행교세관법검철교보복군소기전

09년 공무원 시험안내

개강 9월16일(주) 아간반 모집	합격 회원 모집
▶ 전국: 9급 직거위 4월 중순, 7-9급 지방직 6월 하순	▶ 6개월 (총) 1년 (정) 1회원
▶ 1급 국거위 7, 8월 지방직 시험	▶ 합격시 까지 (정기) 회원
▶ 내년부터 공시: 연형심사만 없었다 (학한 기정은 유지)	▶ 수강료가 저렴하여 부담이 적습니다.

= 『無等』은 “꼭” 합격 할수 있다는 確信을 드립니다!! =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우문앞) ☎ 222-4560

www.mdgosl.co.kr

새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제18회시험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전국 수석합격자 배출 (현대원48세 · 최영아31세)

전국 최강 교수진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TV강의 교수진!

10월 26일 시험대비 시책특강	9월 16일 ~ 10월 5일	2009년도 시험대비반	개강 11월 3일
시책특강	최종문제풀이특강	현재접수중	첫진도 시작반 (주·야)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연회원 수강신청시 수강료 20% 할인혜택(50명)
			주부반 · 성인반 · 국비무료 교습 재직자반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신해합격자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을 1위 전국수석합격 **새콤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361-8111 ▶ 동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268-8111 ▶ 화정1진, 오치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콤빌딩 4층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